



배에서 바라다 본 섬 마을. 1년에 한번 찾아가는 해군 홍보단이 이통리에선 가장 반가운 손님이다.

# 落島를 찾아서

海  
軍  
기  
동  
홍  
보  
단  
과

기형 전남지부

## 趙炳桓

멀리서 바람이 불어 온다.

벌써 우리를 반겨주는 기분이다.

하얀 물거품을 일며 부서지는 파도, 뽀얀 물기둥이 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의식한다. 잔잔한 수면에 파문을 일으키려는 듯 바람이 거세어 지고 파도의 키가 드높아지기만 반복 될 뿐, 드디어 남해의 외로운 섬마을이 보였다. 진도군 지산면 장도라는 이 섬은 첫인상에 훌륭한 감회를 느끼게 되었다. 해군 홍보단이 정박하자 새까맣게 그을린 꼬마들

은 둥그런 눈동자로 여기 저기서 모여들었다.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섬마을 주민들은 일년에 한번 찾아주는 해군 홍보단이 유일한 생명선인 양 기쁨으로 반겨주었다.

우리는 철석거리는 파도 소리를 낚전으로 느끼며 마을 어귀에 여장을 풀었다. 뭔가 신기함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또렷 또렷한 눈방울과 섬 주민들에게 기생충 구제사업에 대한 계몽을 시작하였다. 기생충이란 어원마저도 생소하기에 이 마을

곧바로 어귀에 차려놓은 가두 검진반에서  
 서주석에서 검변을 실시하는 검진반  
 원들을 신기한듯이 바라보는 섬마을  
 민들.



주민들은 회충(蛔虫)밖에 모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배가 아프면 회충이 많아서 아프다는 것은 섬 주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며 회충약 한가지면 모든 기생충이 구충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기생충 검사를 하는 동안, 마냥 신기하게만 보는 어린 아이들의 눈초리…… 개구장이 아이들은 수줍음조차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현미경을 어루만지며 신나게 눈동자를 굴린다.

‘아저씨 무엇해요?’

‘응’, 기생충 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약을 먹도록 하는 거란다’.

‘기생충이 뭐요?’

‘아’ 그건 우리들의 몸속에서 피와 영양분을 빨아 먹고 사는 무서운 버러지란다, 세분화해가는 개구장이…… 심지어 어떤 아이는 검사

를 하지 않고 회충약만 먹으면 되지 않아요?…… 라는 주민들의 사고방식.

기생충의 종류가 회충만이 아니며 그보다 더 무서운 기생충이 많다는 것, 그래서 그것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하고 감염된 기생충은 하루빨리 구제해야 된다는 자각을 심어 주기에 진 땀을 흘려야만 했다.

가까운 시야에 드러오는 반짝이는 바다 물결과 이름 모를 산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기생충 검사를 계속해 나갔다. 더러운 똥(大便)을 어떻게 검사하느냐고 코를 막는 꼬마들에게 거짓없는 연민의 정을 느꼈다. 성인의 경우 배지고기를 날 것으로 먹는것이 보통 이섬 주민들의 생활 습성이 되어 촌충(寸虫) 일명 그지역 주민들이 말 하고있는 백충(白虫) 감염자가 도시인 보다 훨씬 많았다.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체



섬마을 주민 대표와 함께. 구회당 앞에 작이장이 걸려있다. 건넌 밤이 찾아가던 그때 이촌이 어린 하계 올랐다.

내에 기생충을 번식 시켜가는 이베들의 서글픈 실정이다.

이번 검사를 통하여 낙도 주민의 93.8%가 최종 13.9%가 조충에 감염되어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대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교육이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서 살아 버리게된 섬 주민들……

그들의 2세만이라도 앓을 키워 집을 밝게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곳의 유일한 배움의 터전인 장도분실이 있기에 다행이다. 4세대에 인구 38명이 고작이다.

학생수 10명에 복로 교대출신 여선생이 있었다. 여자의 품으로 육지로부터 멀리 소외된 이 낙도(落島)에 아름다운 동심을 키워가는 열의에 감사를 표했다. 그여선생의 말에 의하면 진도군 교육청 관내 분실이란 학교가 몇군데 또 있다고 한다. 「기생충 박멸협회」에서는

매년 봄 가을로 년 2회씩 도내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기생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곳은 구제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는 표정이였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배우는 학생들 뿐 아니라 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새싹들에게도 해당 교육청에서는 어린이 건강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다.

그날은 5월 5일 어린이 날이었다. 이 날을 기해 이웃섬 학교로 학부모들과 소풍을 가지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년이면 한번씩 찾아 주는 유일한 생명선(生命線)인 해군 홍보단이 더중요하다고…

처음의 계획을 변경하고 해군 홍보단장 이필은 중령의 선처로 이날의 소풍은 군함을 구경하였다. 육지가 그림고 철길을 달리는 기차가 보물은 이섬마을을 어린이들은 얼굴

에 우습קות을 함박 피우며 군함 안  
을 이리 저리 뛰어나니면서 구성하  
는 것을 볼수있었다.

다시 와서 자기네들의 진료와 기  
생충, 짐사를 해 달라고 당부하는  
주민들에게 마지막 아쉬운 작별 인  
사를 해야만 했었다. 일년이면 백  
여개의 집을 중심으로 무의낙도

(無医落島) 주민들에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나뎠으나 이날 처럼 보람  
된 날이 없었다는 홍보단장의 말과  
함께 말할수 없는 뿌듯함이 가슴에  
지워지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지는  
넓은 바다의 넘실거리는 물결속에  
그네들의 기뻐하던 새모습들이 소  
용도리되어 퍼져간다.



[편집자註] 신인 만화가 장영호씨의 연재  
만화인 이 만화부터 매 회 실리게 될 예정  
입니다.